

## ADB,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

### □ 국내외 여건에 따라 2003년부터 성장궤도 회복 전망

- 아시아 개도국의 성장은 2002년에 완만한 성장세를 회복한 후 내년부터 균형잡힌 본격적인 회복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 이는 물론 IMF이전의 장기 고성장기간과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님.
- 문제는 얼마나 조속히 과거의 성장궤도에 근접하는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며, 여기에는 향후 수년간 대외부문의 경기회복 여부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 내수부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임.
- 한편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높은 부실여신비율로 인한 금융 및 기업 부문의 취약성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.

### □ 주요국 경제회복에 연계된 경제회복에는 리스크 요인 잠재

- 2002~03년의 아시아 전망은 세계경제여건의 호전여부에 달려 있음. 즉 작년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되기 시작한 미국경제는 EU 및 일본의 경기회복을 동반하는 경우에 그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.
- 이밖에 아시아지역의 지속 성장세 회복을 위한 대외여건으로는 유가안정세 유지, 금리안정, 주요국 통화가치 안정, 해외차입 비용 하락 등을 들 수 있음.
- 점진적 회복 시나리오에 대한 중장기 리스크 요소로는 첫째, 수출회복이 예상보다 약세를 보일 가능성, 둘째,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른 유가급등 현상 셋째, 구조조정 성과부진으로 인한 내수침체 및 생산성 저하 등을 들 수 있음.

<표> 아시아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

	1991-96	1997-01	2001	2002	2003
중국	11.4	7.3	7.3	7.0	7.4
한국	6.9	4.8	3.0	4.8	6.0
인도네시아	6.6	3.8	-1.9	2.8	4.0
말레이시아	7.4	0	3.3	3.0	3.6
필리핀	9.1	1.5	0.4	4.2	5.8
싱가폴	3.5	2.6	3.4	4.0	4.5
태국	9.2	4.0	-2.0	3.7	6.5
	8.0	0	1.8	2.5	3.0

□ 대외부문의 리스크

- 수출수요의 회복이 예상보다 약한 경우에는 수출부진, 기업 및 금융부문의 수익저하로 인한 취약성, 높은 실업률 지속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.
-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점진적인 시도가 미국의 수입감소에 따른 개도국의 수출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됨.
- 인플레이 우려가 상존해 있는 바, 중동에서의 불안고조가 유가상승을 초래할 가능성과 함께 재정확대 정책의 연차적 효과로 인플레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.

□ 국내부문 리스크

- 대외부문에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약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서는 내수분야의 육성이 시급한 문제임. 높은 저축률과 함께 수출관련 산업에의 투자에 주력해 온 한국,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은 내수기반의 확충이 산업 전분야가 균형잡힌 역동성을 보이는 성장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.
- 내수시장 성장이 노동시장 개혁 및 경쟁체제 강화를 포함한 구조조정면에서의 성과를 동반하는 경우 아시아 주요국들은 장기 고성장이도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.